

미 “도쿄 올림픽 선수단 파견 논의중”

여행금지 권고후 불참 논란 빛자 백악관·국무부 나서 진화

올림픽위원회도 출전 입장 밝혀

미국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국무부의 '일본 여행금지' 격상 조치가 미국 선수단의 올림픽 불참 가능성 논란으로까지 번지자 "선수단 파견을 논의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 국무부가 전날 일본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인 '여행 재고'에서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 권고로 바꾼 것과 관련, 미국의 올림픽 출전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사키 대변인은 "올림픽에 관한 우리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따져보는 세심한 고려를 이해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스키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방미 때 안전한 올림픽 개최를 위한 일본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그들이 올림픽 주최 계획을 세울 때 공중 보건이 핵심적 우선순위로 남아 있음을 강조해 왔다"며 "대통령은 미국의 선수단을 자랑스럽게 지원한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나는 우리가 엄격한 코로나19 절

차 내에서 올림픽이란 우산 아래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음에 주목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이는 올림픽을 위해 일본에 가는 계획을 세우는 미국 여행객 중 매우 제한된 범주의 하나"라며 "주최 측이 관련된 모든 이들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제시한 아주 구체적인 입국과 이동 규정,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가 전날 미국인에게 일본 여행 금지를 권고함에 따라 7월 23일 개막 예정인 도쿄 올림픽의 미국 선수단 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특히 일본에서는 미국 선수단의 올림픽 불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와 함께 미국이 불참하면 다른 나라로 올림픽 출전을 꺼리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대회 실현이라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미국의 입장에는 어떤 변화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발 변수가 올림픽 개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려 애를 썼다.

이런 가운데 나온 사키 대변인의 발언은 여행금지 권고를 미국 선수단의 대회 불참으로 연결시키는 해석을 경계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의 올림픽 개최 노력을 축면 지원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의 권고는 일본 여행을 계획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이와 별개로 선수단을 비롯

한 올림픽 관련 방문자의 경우 공중보건 수칙에 맞춰 파견하는 방안을 여전히 논의 중이고 일본의 방역 조치와 판단을 신뢰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도 올림픽 참가문제와 관련해 올림픽을 위해 훈련해 왔고 올림픽 정신이란 최고의 전통 속에 경쟁할 미국 선수들을 바이든 대통령이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논평은 사키 대변인의 발언과 거의 흡사해 국무부의 여행금지 권고 후 불참 논란이 빛어지자 백악관과 국무부가 사전 조율한 결과 아니냐는 관측까지 낳았다.

미국 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도 전날 미국 선수들이 도쿄 올림픽에서 안전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전히 예상한다며 여행금지 권고가 올림픽 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는 백악관이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려는 일본의 계획과 미국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경쟁하도록 하겠다는 점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고 일본 내에서도 올림픽 취소 주장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일본은 하루 확진자 수가 4000명대까지 늘어나고 있으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3번째 긴급사태가 발효된 상태다.

지난 15-16일 일본 교도통신의 여론조사에선 일본 국민의 60%가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연합뉴스



팔레스타인 시민사회 면담하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 25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 라말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팔레스타인 시민사회 대표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이날 블링컨 국무장관은 마무드 이브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을 면담한 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로 폐허가 된 가자 지구 재건을 위한 원조 등을 약속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의해 폐쇄된 예루살렘 주제 영사관 재개관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코로나 중국 기원설’ 재점화?

“WHO 보고서에 담겼지만 간과
CNN “사태 초기 우한 사망률 급증”

세계보건기구(WHO)의 중국 현지조사 보고서에 코로나19 ‘중국 기원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담겼지만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자료는 WHO 패널이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 가운데 200쪽에 달하는 부속 보고서에 포함돼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CNN 방송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부속에는 중국이 바이러스의 발생 시기를 포함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는 자료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체에서 추출한 코로나19 표본을 저장·파괴하는 과도도 상세히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첫 번째로 보고된 감염자가 2019년 12월 접한 28종의 음식 목록과 야생동물을 파는 재래시장에도 들렀던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이 자료를 근거로 중국 기원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투병

성 요구와, 중국에서 추가 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WHO 팀의 요구도 더욱 커질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WHO의 부속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 12월 초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동물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인다. 보고서는 중국이 같은 달 7일 아프리카-아시아 원숭이와 사향노루, 고슴도치, 대나무쥐 등 야생동물 69종에서 표본을 추출했다고 기술했다. 이에 대해 중국 국가보건위원회(NHC)는 2020년 2월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거친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WHO 패널에서는 “이상하다”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NHC는 2019년 12월~2020년 2월 표본을 추출해 동물 전염병을 검사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2020년 2월 조사한 표본이 2019년 12월 7일 실시된 것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2019년 전체인지 불분명하다는 게 CNN의 지적이다. 당시 WHO 패널은 정기 조사라는 중국의 설명을 받아들였지만, 동물을 조사한 원자료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미얀마 군 잇단 공습에 카렌족 7만명 피란

“무뜨로 지역 10명 중 9명 난민”

미얀마 군의 공습으로 소수민족 주민들의 피란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현지매체인 미얀마 나우의 지난 3월 이후 미얀마 군의 공습으로 남동부 카렌주에서 7만여명의 주민들이 집을 떠나 피신했다고 카렌평화지원연대(KPSN) 보고서를 인용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는 카렌주에서 군부가 자행한 주민 학살과 약탈 및 난민들에 관한 기록이 담겨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말 이후로 5500명의

카렌족 주민들이 공습을 피해 태국으로 피신했다가 결국 송환됐다. 무뜨로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의 90%가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에는 미얀마군 경비병 대대가 3명의 민간인을 살해했고 이중 한명이 소지하고 있던 금전도 탈취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13일에는 한 마을에 진입해 주민들을 상대로 카렌민족해방군(KNLA)을 돕지말라고 경고하면서 휴대폰을 빼앗아갔다. 군부는 그동안 카렌민족연합(KNU)의 공세로 인해 교전이 벌어졌다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두살 여아가 IQ 146

미국 최연소 멘사 가입

미국에서 두 살배기 아이가 높은 지능 지수(IQ)를 인정받아 최연소로 자국 멘사에 가입했다고 미 폭스11 뉴스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여자아이 카세 퀘스트(2)는 최근 시험을 거친 결과 IQ가 146 수준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평균 IQ는 100이다. 멘사는 높은 IQ를 가진 사람만 회원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퀘스트는 땅의 모양만 보고도 미국 50개 주를 모두 구분하고, 현재는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으며 수화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퀘스트의 엄마는 “아이의 기억력이 매우 좋다는 것을 점차 알게 됐다”면서 “17, 18개월 즈음에는 모든 철자와 숫자, 색깔을 식별했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를 상의하거나 투정을 부릴 때는 여전히 평범한 두 살짜리와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아이의 이해력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소통하는 방법은 조금 다르긴 하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가 가능한 한 어린 시절을 그대로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플로이드 사망 1주기’ 추모하는 미 미네소타 주민들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을 짓눌린 채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 1주기를 맞아 25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조지 플로이드 광장에서 시민들이 무릎을 꿇고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플로이드가 살해당한 지역인 미네소타주 전역에서는 이날 플로이드가 목을 짓눌린 시간과 같은 ‘9분 29초’ 잔 침묵의 시간을 통해 플로이드를 기렸다. /연합뉴스



금남새마을금고 사옥 신축 착공기념

경품 대 잔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정기예금(100억한도)

12개월 1.85%

18개월 1.95%

정기적금

1년 3.0%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2020년 출자금

3.0% 배당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총장지점 223-7217